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작업 개시

- 중장기(2030년, 2030년 + @) 시계로 ①중장기전략 목표 → ②목표별 성과지표 → ③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우리 경제·사회 대전환 계기 마련
-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고, 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1.8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요 】

-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서 2012년부터 운용
- ①혁신성장반(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산업 및 경제 등), ②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③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등)으로 구성
- 제7기 위원은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과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금일 개최한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의 미래 위기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관계, 양안갈등 등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구조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상의 사건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인구구조, 내수 시장, 자원 상황, 기후와 지형 등을 '상수'로 보며,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였다.

그 밖에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상향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정동 혁신성장반 분과장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세대를 꿰뚫는 화두를 던지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정부에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을 검토·보완함으로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년 1.2일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초혁신 경제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재정·예산정책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우리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인 ①인구위기 대응, ②탄소중립 달성, ③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④양극화 완화 및 ⑤지역 불균형 완화 등의 달성하면서 미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대응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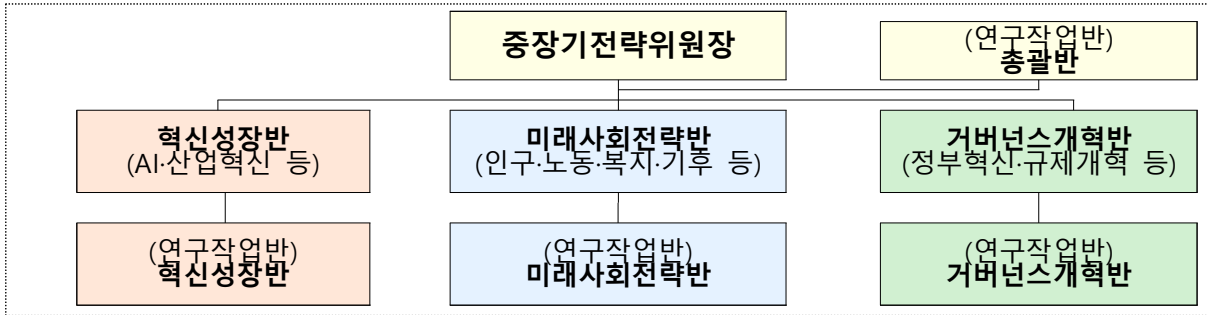
중장기 시계로(중기: 2030년, 장기: 2030년 + @) ①중장기전략 목표 수립 → ②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③분야별 정책 추진과제를 정하고, 각 목표와 과제들은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체계적으로 협업해 나가고,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곽상현 (044-214-1610)
		담당자	사무관	김효진 (hjkim1104@korea.kr)
	미래전략기획실 혁신경제전환과	책임자	과 장	신명석 (044-214-1630)
		담당자	사무관	김재현 (z56543@korea.kr)

참 고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구성('25.9~'27.9)



분과	사진	이름	현직	사진	이름	현직
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간사)
혁신성장반 (8명)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분과장)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간사)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윤희	산업연 선임연구위원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지속가능대학원 교수
		황경민	(주)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분과장)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문병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간사)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대기자
		장병규	크라프트톤 이사회 의장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분과장)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